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1 출장 개요

☐ 출장목적

- 제134차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(ELSAC) 의제준비 및 회의참석

☐ 과제명

- [수탁19-020-00]2019년 OECD 보건복지 이슈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

☐ 출장기간

- 2019.04.02.(화) ~ 2019.04.06(토)

☐ 출장국가[도시]

- 프랑스(파리)

☐ 출장자

- 류정희 연구위원

☐ 일정요약

일자	국가[도시]	방문기관	면담자	주요 활동상황
04.02	프랑스/파리	출국(한국/인천→프랑스/파리)		
04.03	프랑스/파리	제134차 ELSAC 참석		1일차 회의참석
04.04	프랑스/파리	제134차 ELSAC 참석		2일차 회의참석
04.05	프랑스/파리	귀국(프랑스/파리→한국/인천)		
04.06	한국/인천	인천 도착		익일차 입국

2 출장 주요내용

①	제134차 ELSAC 회의
일 시	04.03 09:30-17:30
장 소	파리(OECD본부)
참석자	OECD각국 대표단, 류정희 연구위원(KIHASA)
□ 사회정책작업반 회의 보고 (화상보고) ○ 19개 회원국이 사회정책작업반에 참여 ○ Policy Workshop이 Canada에서 개최되어,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개입방안, 가족과 아동의 조기교육과 돌봄(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)에 대해 논의 - 독일의 ECEC, 한국의 가족정책 등 •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 1) 가정의 돌봄 (경제적 지원 등),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이동성(social mobility)에 대한 연구 계획됨 ○ 10월 28일 회의는 아동과 성인을 위한 행동계획 (Action Plan)을 논의 - 포르투갈의 연금체계(Pension System)에 대한 검토: 비형 노동자들을 위한 연금체계,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 추정 등 - 2019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 □ 사회장관회의의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 ○ 2018 년 5 월 15일 OECD국가 사회정책장관의 정책선언문 (공동변명을 위한 사회정책: 포용적 미래)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도전과 가능성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강조, ELSAC은 사회정책장관 회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“오늘의 사회적 필요(Social Needs Today)”와 “내일을 위한 사회데이터(Social Data for Tmorrow)”라는 광범위한 주제 하에 이슈개발 착수(DELSA / ELSA (2018) 18 참고). ○ 후속조치는 다음의 4개의 파트로 구성됨 - OECD의 Risks that Matter 조사 및 결과 - 사회정책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업무혁신 - 2019년 10월 16일 파리 OECD에서 개최예정인 컨퍼런스, “보다 효과적인 사회정책과 사회서비스제공을 위한 새로운 사회데이터”(“New social data for more effective	

social policy and service delivery”)

- 2018년 10월 ELSAC 논의되었던[DELSA / ELSA (2018) 18] 국가별, 생애주기별 사회경제적 위험을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웍(framework)의 개발과 위험의 매핑(mapping)작업
 - OECD 사회경제적 위험 프레임워크
 - 위험매핑에 대한 예비분석결과

〈주요논의 및 결과〉

- (오스트리아) Risks that matter와 Risk Framework에 대한 각국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명확한 timeline제시 요구
 - (OECD 사무국) 설문조사 참여 및 기부금에 대한 의향표명은 2019년 여름 또는 이른 가을까지 이루어지도록 요청. 또한, 회원국에게 발간된(2019년 3월 발행) 2018년 보고서의 방법론 및 결과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요청.
- (스웨덴) 통계학적 방법론과 설문조사의 질 관련 이슈검토 필요 (예: 설문지의 논리적인 구성 등)
- (캐나다) 설문조사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이슈 제기.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설문조사에서 국가별 다양성에 대한 고려 필요. 캐나다의 경우, 원주민 등 국민들 간의 다양성,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점이 향후 작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 있음
 - 사회적 위험 프레임워크(Social Risks Framework)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
 -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시장모델에 기초하는 사회적 보호체계, 사회정책적 접근에 대해 우려를 표명, 비전형적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(네덜란드) 사회위험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에 대해 동의함.
 - 시민들의 위험에 대한 사정 (risk assessment)과 인식이 단기적인 변화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, 2018년과 2020년의 결과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것인지 의문.
- (EU) 사회경제적 위험은 생애과정에 따라 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“생애주기별 접근”에 기초하여 위험에 대한 맵핑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.
- (덴마크)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및 방안 필요

②	제134차 ELSAC 회의
일 시	04.04 09:30-17:30
장 소	파리(OECD본부)
참석자	OECD각국 대표단, 류정희 연구위원(KIHASA)

10. 아동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슈들

〈사무국보고〉

□ 아동웰빙에 대한 OECD의 연구는 한국과 캐나다의 편당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, 2018년에 아동빈곤의 결정요인과 아동빈곤정책과 관련한 연구결과와 보고서 발행

- 정책브리프: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아동: 정책적 개입의 필요한 이유
- 워킹페이퍼: OECD국가의 아동빈곤:동향, 결정요인과 정책
- 워킹페이퍼: 캐나다의 아동빈곤에 대한 대응
- 워킹페이퍼: 한국의 아동빈곤에 대한 대응 (DELSA/ELSA/WD/SEM(2018)18)

□ 아동웰빙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주제와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

○ “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아동들”; OECD 국가의 아동빈곤 동향과 빈곤완화정책

- 한국과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, 감사함을 전함.
- 아동가구의 소득빈곤은 아동의 신체, 인지,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OECD국가에서의 아동빈곤 현황
 - OECD 평균, 7명의 아동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며 많은 국가들에서 아동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높은 빈곤위험을 가지고 있음.
 - 2/3 OECD국가들의 상대적 아동빈곤율은 2007/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해 왔음.
- 아동빈곤 악화의 원인진단
 - 저소득층 가구의 부모들의 불안정한 취업상태: 실직가정의 빈곤율은 63%로 부모중 한쪽이 일을 하는 가정에 비해 빈곤율이 6배가 높음
 - 한부모가정의 증가: 한부모가정 아동의 빈곤율 39%
- 아동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

- 안정적인 노동상태를 확보하는 것은 아동빈곤예방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저소득 부모들의 취업촉진을 위한 정책개입에 대한 우선적 고려필요
- 아동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족수당, 주거지원 등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포함하는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아동빈곤정책 강화 필요
- 가족과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서비스의 강화

○ 증가하는 가족의 다양성과 모든 아동을 위한 동등한 기회 보장의 필요성

- OECD 가족서비스 항목(Family Service Inventory)
 - 기존의 정책 및 서비스프로그램의 맵핑
 -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정책사례에 대한 파악
 - 정책평가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제공

○ 조기교육의 효과와 전망

- 아동의 생애에서 초기 5년은 인생전반에 걸친 인지, 정서, 사회발달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균형있는 발달은 아동웰빙을 좌우함.
- 영유아기 아동발달과 아동웰빙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위해, 조기학습의 효과와 전망 (The Power and Promise of Early Learning”)에 대한 연구

○ 아동노동의 근절을 위한 방안

- 아동노동실태
- 2016년에는 약 152 백만 아동이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아동 노동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.
- 2016년 기준, 5세에서 17세 아동 중 10명 중 1명이 아동노동에 종사, 그 중 절반이 위험한 작업 수행.
- 정책과 기업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아동노동의 근절 이루어야 함.
 - 정부는 책임성있는 기업지원하고 인간에 대한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틀을 수립, 책임있는 비즈니스 행동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공하고 아동 노동문제에 대한 회사 자체의 책임을 강화
 - 기업의 경우, 아동 노동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회사경영시스템구축

〈주요논의 및 결과〉

- (TUAC) 아동웰빙에 대한 의미있는 작업이며 향후 문서로 피드백 제공할 예정
- (BIAC) 아동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이슈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- (스페인) 아동웰빙, 특히 아동빈곤의 현황에 대한 유용한 작업으로 평가됨. 특히, 아동빈곤율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, 빈곤한 아동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망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.
 - 스페인정부는 향후 4년간 아동빈곤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, 다차원적인 아동빈곤완화 및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 예컨대,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아동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.
- (미국) 매우 유용한 보고서에 대한 동의표명. 향후 아동노동을 포함한 아동웰빙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예정
- (네덜란드) 아동빈곤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건. 아동빈곤과 웰빙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다양한 차원의 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
- (일본) 아동빈곤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 지지표명.
- (사무국) 아동웰빙, 불평등, 아동빈곤의 이슈를 사회적 인적자본개발과 연결하여 접근할 필요성 제기